인민의 행복은 이렇게 꽃펴난다

국제사회의 눈길이 조선으로 향하고있다.

살기를 뽐으며 옥죄이고있는 악랄한 제재도 흔들지 못하고 세계를 휩쓰는 무서운 병마도 스며들지 못하는 공화국에 대한 탄복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나온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 천지개벽하는 공화국의 모습을 다시금 본다.

3월의 봄뢰성

봄은 소리없이 찾아와 대지에 생명과 활력을 부어준다.

그러나 이해의 봄은 격동과 환희의 뢰성으로 벅차게, 완연하게 다가왔다.

지난 3월 17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장에 나오시여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착공의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숙원해온 현대적인 종합병원건설이라시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무라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의 깊은 뜻을 구절구절 되새기느라면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쳐오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서사시로 펼쳐진다.

류경안과종합병원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보건산소공장, 강서약수공장 약수목욕탕,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인민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시며 일떠세워주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병원들과 행복의 별천지들이다.

이 땅의 곳곳마다에 자리잡고있는 인민의 금방석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아이들을 위해 개건된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평양육아원과 같은 육아원, 애육원들, 과학자들을 위한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래과학자거리 그리고 려명거리, 창전거리, 삼지연시 등은 모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마련해주신 사랑의 금방석들이다.

몸소 총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세상이 좁다하게 펼쳐주시고도 그 모든것은 《큰 산속의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하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이런분이시다.

지금처럼 무더운 삼복철이나 추운 겨울에 인민들이 삐스정류소에 서있는것을 볼때면 승용차를 타고 가는것이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다고 하시고 하나의 창조물을 보시고도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인민의 리익이 천만분의 하나라도 침해당하는것을 단호히 불허하시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제일 귀중한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가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산속의 모래알》들이 사회주의문명을 이루고 번영의 열매로 주렁졌건만 그래도 부족하시여 온전하게 꾸려진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것을 가슴아프게 자책하시니 그이의 인민사랑의 높이는 창공의 끝이런가, 은정의 넓이는 우주의 광대함이런가.

래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를 안고 혹은 걱정과 불안속에 지어한숨과 절망으로 래일을 맞이한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은 자

수령님들께서 지켜보신다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가보면 건설자모두가 아침저녁으로 만수대언덕을 우러러보며 숭엄히 뇌이는 심장의 웨침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켜보신다.

머리흰 장령도, 새빨간 견장의 전사도 당창건기념탑을 바라보며 신심에 넘쳐 웨치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를 믿고계신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생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만수대언덕우에 서시여 인민의 행복넘친 오늘과 밝은 래일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금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솟아오르는 평양종합병원건설도 보고계신다.

언제나 인민들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이시다.

그 행복속에는 인민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락원에서 사는 기쁨과 영광이 있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가 생활속에 깊이 뿌리박은 일심단결의 화목한 대가정에서 사는 긍지도 있으며 제힘으로 물질문화생활을 날로 향상시켜나가는데 대한 자부심도 있다.

이 땅의 어디에나 그런 영광과 긍지를 지닌 복받은 삶이 차고넘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승화되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이어지고있다.

평양종합병원건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발기하시고 꾸려가시는 인민사랑의 대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수많은 인민적시책들을 그대로 펼치시면서도 모든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인민의 소중한 건강과 안녕을 보다 믿음직하게 지키는 인민적인 보건, 선진적인 보건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짚어야 한다시는 어버이의 절절한 당부가 인민의 심장을 울리고있다.

세상이 부러워하게

건설장은 말그대로 끓어번지는 불도가니이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류례없는 난관을 정면돌파해가는 치렬한 격전장, 싸우는 전선이다.

적대세력들은 《정면돌파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충격파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 《심한 경제난이 가중되였을것》이라고 떠들며 공화국인민이 나아가는 길에 얼음물을 퍼붓고있다.

편견과 억측, 모략과 날조로 엮어놓은 횡설수설과 이 땅을 생존부지의 원시시대로 되돌리려는 악랄한 제재봉쇄가 공화국인민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발악한다.

이 땅의 불빛수를 세여보며 경제적크기를 추산하는 머리로는 천만심장이 불태우는 정의와 진리, 사랑과 보답의 열도를 재여볼수 없고 용솟음치는 힘의 크기를 재량할수 없는 법이다.

공화국인민은 천만의 웃음을 빼앗아 번쩍이는 자본주의《호화》, 황금채찍아래 숨져간 생명으로 쌓아진 자본주의《번영》에 침을 뱉은지 오래다.

무지개와 같은 허상을 바라보는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제손으로 존엄과 행복의 값진 열매들을 거두어들이고 만복의 래일을 가꾸어간다.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와서 보면 자력자강으로 마련해가는 행복의 진의미를 알수 있다.

푹 박아 들리는 한삽한삽에 랑만의 웃음과 열정의 땀방울이 그득 담긴다.

공화국인민들의 제일가는 행복은 위대한 수령을 대대로 인민의 어버이로 모시는 영광과 기쁨이다.

만수대언덕을 우러르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고 당창건기념탑을 바라보면 수령님들의 모습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하신 영상으로 안겨오는 이곳 평양종합병원건설장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가꿔주시기에 세상에는 천지풍파가 휘몰아쳐도 공화국에는 창창한 번영의 아침만이 밝아오고있는것이다.

한해동안에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우는 공화국의 건설속도가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도 비약을 일으키고있다.

세계를 억누르며 분쟁과 전란, 경제침체와 정치적무질서의 대혼란속에서 울려나오는 탄식과 비애에 쾌락의 미소를 짓던 패권주의자들이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 울리는 노래소리, 웃음소리를 듣는다면 경악할것이다.

항상 남의 얼굴만 쳐다보는 사대주의자들이 여기 건설장에 넘치는 자력자강의 기상을 본다면 머리를 떨굴것이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평양종합병원건설은 갖은 비난과 압박을 가해오는자들에게 시작부터 통장훈을 부르고있다.

자력자강의 창조로 마련해가는 아름다운 행복, 기적으로 앞당기는 번영이다.

평양종합병원건설장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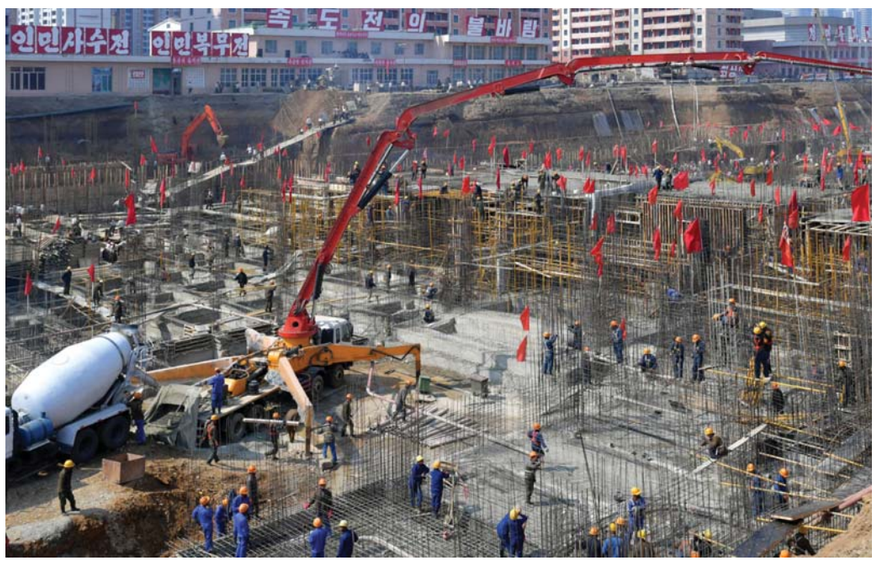
북변의 삼지연꾸리기 3단계 공사장과 순천린비료공장, 홍건도의 간석지건설장, 동해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전역에서 제재의 사슬을 박차고 시대의 대기념비들이 보란듯이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을 다시면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서 낮과 밤으로 충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리고있다.

공화국인민은 이렇게 자기식으로, 자기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정면돌파해나가며 행복과 기적을 창조해간다.

당창건기념일까지는 불과 몇달, 공화국인민은 그 짧은 수개월에 더욱 눈부신 시대의 기념비들을 일떠세우며 행복의 새 세기를 창조해갈것이다.

조순희



명강과 시와 인민

령도자와 인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속에 지금 수도의 중심부에서 건설이 한창이고있는 평양종합병원은 대동강반에 위치하고있다.

이곳에서 머리를 조금 들어 앞을 바라보면 대동강이 푸른 구슬 드리운듯 반짝이며 흐르고 그 건너편에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숭엄하게 안겨온다. 뒤를 돌아보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이 틀어쥔 마치와 낫과 붓을 형상한 당창건기념탑의 탑신이 하늘높이 치솟아있다.

어버이수령님들께서 사랑과 정을 담아 언제나 지켜보아주시고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폭이 어머니의 치마폭인양 포근히 감싸안아주는 더없이 따뜻한 이곳에 인민을 위한 선진적인 종합병원인 평양종합병원이 일떠서고있는것이다.

평양랭면으로 세상에 소문난 옥류관도 지척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고 물의 궁전, 문수물놀이장에서 터치는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도 귀전에 들려오는 이곳이다. 고려시기의 시인 김황원이 대동강반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긴 성벽기슭으로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넓은 벌 동쪽에는 점점이 산이 있네》라고 시를 절반 지어놓았으나 그 아름다움을 다 담을수 없어서 그만 붓대를 던지고 통곡하였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부벽루도 손을 뻗치면 금시 닿을듯 하다.

명당자리면 이보다 더 좋은 명당자리가 또 있겠는가. 이런 자리에 오는 10월이면 완공될 종합병원에서 의료상 방조를 마음껏 받을 공화국의 인민들은 얼마나 복받은 인민들인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땅의 주인도, 명당의 주인도 인민이다.

지금 공화국에서 경치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모든 측면에서 나무랄데 없는 좋은 자리들에는 다 인민을 위한 건축물들이 시대의 기념비인양 솟아 빛을 뿌리고있다. 여기에는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어리여있다.

주체36(1947)년 4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 모형사판을 보시였다.

모형사판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짓는 대학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위치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 좋겠다고, 대학주변은 교원들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알맞게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처럼 새 교사위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당자리를 고르고고르시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 친히 밟아보신 곳은 한두곳이 아니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룡남산기슭에 대학을 앉히도록 자리를 정해주시여 그 명당자리에 해방된 조선의 첫 인민의 대학이 일떠서게 된것이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들에게 모든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속에서 수도 평양 중심부의 명당자리에도 인민을 위한 창조물이 일떠설수 있었다.

주체62(1973)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모란봉에 오르시여 평양의 전경을 부감하시다가 동행한 일군들에게 저기에 무슨 건물을 앉혔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산재를 가리키고계셨다.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평양시복구건설계획도를 작성할 때 남산재를 수도의 중심부로 정하고 그곳을 축으로 도시를 형성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시면서도 그 남산재만은 굳이 빈터로 남겨두게 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앞을 바라보면 대동강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한옆으로 돌아서면 모란봉의 전경과 문수벌일대가 한눈에 안겨오는 남산재는 그야말로 명당자리였다.

세월이 흘러 그 주변에 크고작은 건물이 많이 일떠섰으나 남산재는 여전히 공지로 남아있었다.

어느해인가 해당 부문에서는 그 좋은 자리에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청사를 무게있게 들여앉힐 설계안을 만든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대번에 밀어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원래 중심광장에는 박물관이나 회관, 도서관, 문화궁전과 같은 인민을 위한 건물을 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두달후인 그해 12월 중순 몸소 남산재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이곳을 정리할 때가 되였다고 하시면서 평양에는 이미 문화궁전도 있고 학생소년궁전도 있으니 여기에다는 도서관을 하나 크게 짓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되면 학생소년궁전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여기서는 어른들이 공부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여기 남산재에 도서관을 앉히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수십년을 두고 공지로 남아있던 남산재에 그이께서 손수 지어주신 《인민대학습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전민학습의 대전당이 조선식건물로 일떠서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명당자리들에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언제인가 강원도 원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도원으로 들어가는 도래굽이도로를 지나 로동자휴양소 앞을 지나시다가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동해의 명승 송도원의 입구, 그앞에는 시원스레 펼쳐진 맑고 푸른 바다, 뒤에는 장덕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에 야외극장을 건설하면 좋겠다고, 경치도 좋고 건설하기도 간단하다고, 앞에는 시원하게 바다가 보이고 옆에는 송도원이 있어 정말 좋다고 하시였다.

정말 명당자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야외극장은 유원지옆에 건설하는것이 좋다고, 그래야 근로자들이 일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송도원에 와서 낮에는 해수욕도 하고 소나무밑에서 점심식사도 하며 그 다음에는 식물원과 동물원도 돌아보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외극장에 들려 예술공연이나 영화를 볼수 있다고 하시며 그렇게만 되면 그이상 더 리상적인 휴식은 없을것이라고 하시였다.

명당자리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의 행복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보살피심속에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주체107(2018)년 7월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성군에 자리잡은 비행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기에는 정말 명당자리이라고, 이런 광활한 옥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렇게 되여 이곳에 지난해에는 인민을 위한 대규모온실농장과 농장마을이 일떠서게 되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어디 이곳뿐인가.

인민을 위한 그이의 사랑과 헌신의 길우에서 명당자리들에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평양양로원, 연풍과학자휴양소, 과학기술전당,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한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정녕 공화국은 인민의 세상이고 인민이 금방석에 앉아 행복의 웃음짓는 별천지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몸소 확정해주신 중앙종합병원건설

주체37(1948)년 3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와 어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동평양벌에 나오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며칠째 이곳을 돌아보시면서 중앙종합병원(당시)건설에 알맞춤한 곳을 보아두셨다가 보고드리시였다.

이날 병원터전을 확정해주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이 넓어 큰 병원을 건설하기에 적당하다고, 이만한 부지면 앞으로 병원을 더 크게 확장하는데도 걸릴것이 없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 수령님께서는 저쪽에는 경마장이 있으니 병원을 여기에 짓는것이 좋겠다고, 건물을 남향으로 앉히면 방에 해빛이 잘 들어와 좋을것이고 도로가 옆에 있어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교통도 편리할것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은 해방전에 돈이 없어 병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숨지군 하였다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다고, 우리의 인민병원들은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확정해주신 이곳에 일떠설 인민의 종합병원의 모습이 일군들의 눈앞에 안겨왔다.

본사기자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양육아원과 애육원